

알렉스 김

[www.alexjaehyunkim.com](http://www.alexjaehyunkim.com)



## 작가노트

‘인간다움’의 표상은 구겨지고 펼쳐지며, 끄적거림이 쌓여가는 시간 속에서 형성된다. 그러나 구겨지지 않고 펼쳐지지 않으며, 끄적거림이 중단되어 그 무엇도 쌓이지 않는 상태는 인간다움의 의미를 고정된 시간 속에 묶어 둔 채 서서히 소멸시킨다.

나는 자아의 심상에 대한 의식을 수행적인 스케치 작업으로 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인간 내면의 보편적인 유동성을 모색한다. 하나의 고정된 의미나 목적으로 귀결되는 완성품 보다는 ‘움직이는 이미지’로서 존재하는 인간다운 질감을 포착하는 작업을 지향한다.

2024년부터 시작한 일생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스케치, 애니메이션, 회화, 설치 및 퍼포먼스 등의 다양한 매체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 인간다움의 본질 최서원 | 갤러리 도스 큐레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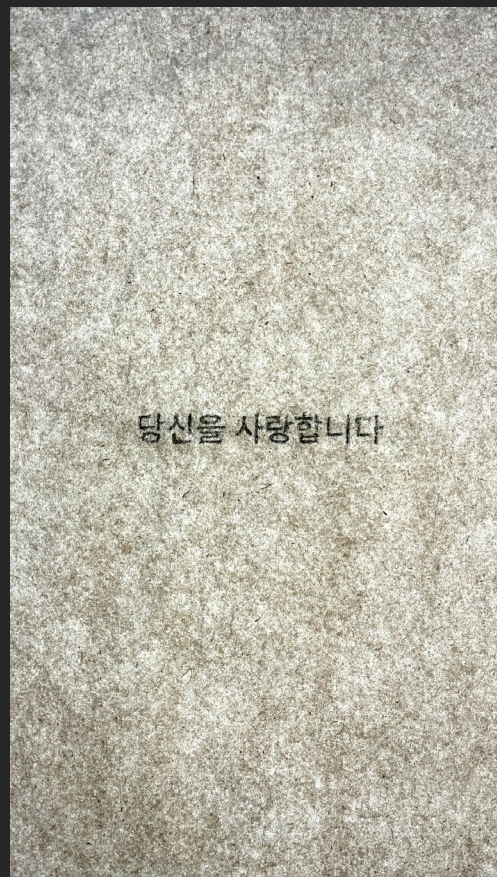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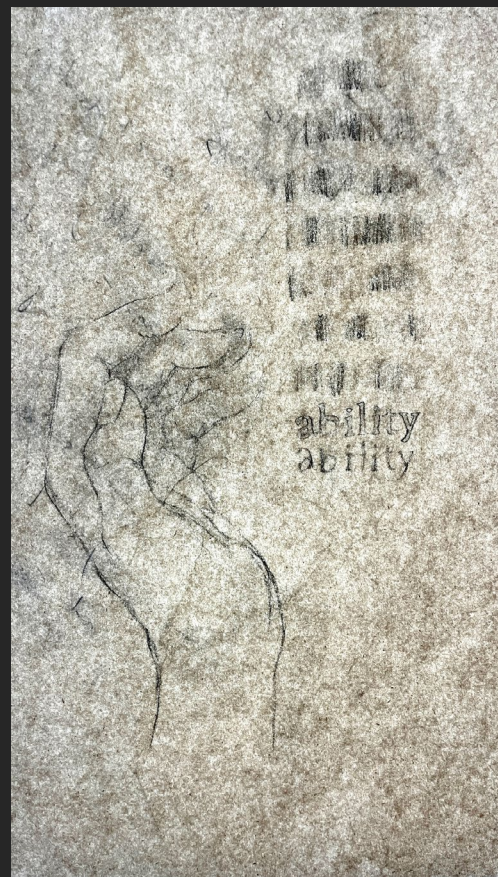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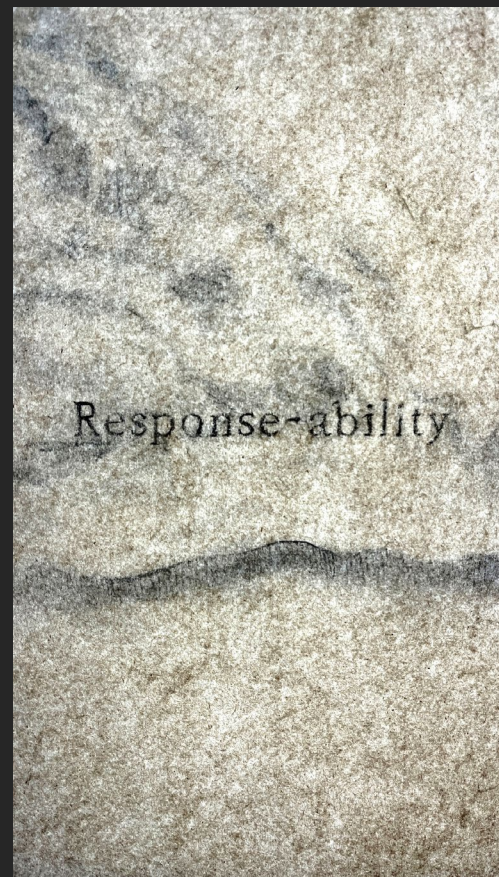
인간의 내면은 고정적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알렉스 김 작가는 시간과 감정에 따라 어느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이는 유동성을 모색한다. 작업은 전시 제목과 같이 구겨지고 펼쳐지며 쌓여가는 능동적인 과정으로 진행된다. 정적으로 붙박인 듯 어떤 미동도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람이 본연적으로 지니는 동적인 특성을 상쇄시킨다. 작가는 인간다운 것이란 무엇인지에 관한 철학을 예술의 영역으로 재해석하면서 스스로 사유한 인간성의 본질을 다채로운 장르에 비추어 표현한다. 나아가 자신을 호흡하면서 삶을 이어가는 생명체로 받아들이며, 멈추지 않는 움직임으로 부단히 노력한 결과를 공유한다. 작품은 연도별 시리즈로 구성되어 사람이 사람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존재론적 의미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실천의 행위로 노출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삶을 회고하고 살아온 흔적을 선연히 되짚어보기를 반복한다.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갖추게 된 일반적인 특성, 공사다망하게 이루어지는 균열과 크고 작은 마찰로 파생된 나약함은 작가가 인간으로서 느낀 감각으로 작용한다. 동서양의 문화권에서 두루 자라 온 경험은 이러한 자아의 복수성을 선명히 자각하는 배경이 되었고 존재의 의미를 신선한 관점으로 구상하게 했다. 장르를 막론한 작품은 지금껏 느껴왔던 감각을 더욱 입체적인 양상으로 드러낸다. 지난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진행되었던 ‘종이-회화’ 시리즈에서는 물성을 구기고 찢으면서 형성되는 우연적 형상에 주목하였다. 종이를 건드리고 파손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주름과 균열은 마치 지나온 과거의 발자취를 상징하는 듯하다. 작업은 종이를 원 상태 그대로 두고 지켜보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형태를 변형하면서 본질의 열린 가능성을 추구하고 결과의 다양한 여지를 탐색하는 실험으로 진행되었다. 24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심상 스케치’ 시리즈는 근래 신작을 포함하고 있는 작품으로, 형태의 자체적인 변화로부터 나아가 물성을 응용하여 끄적이고 표현한다. 그날 하루 동안 느낀 직관을 글과 드로잉으로 기록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그 기록을 일부 지워낸다. 대개 남겨진 기록을 보존하려 하는 보편적인 작품과 달리 비교적 독특한 이 방식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을 읽고 해석하는 가장 원초적인 행위를 벗어나려는 시도이다. 작가가 남긴 자국은 소재의 잔여물들로 보관되며 소용을 다 한 재료를 누적하고 쌓음으로써 설치된다. 올해 25년도부터 시작된 ‘시간의 무게’ 시리즈는 ‘심상 스케치’와 연결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종이가 겹겹이 중첩된 형태를 바탕으로 삼베 천과 오일 파스텔을 활용한 작품이다. 겹과 층이 어우러지면서 속도와 무게, 밀도의 차를 다층적으로 분석한 작업은 공감각적 심상을 불러일으킨다.

존재란 늘 양날의 검과도 같다. 물리적·정신적으로 어느 한쪽의 기세에 매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흐르면서 이동한다. 즉 특정한 무언가가 정답이 되지 않는, 언제나 복합적인 특성으로 경계를 허무는 자유로운 대상인 것이다. 이는 자아와 내면을 단편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되며 개인이 각자의 삶을 복수의 관점으로 조명해야 하는 방증이다. 작가는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재료의 혼합을 선보이면서 인간의 양가적인 내면 심리와 입체적인 면면을 은유적인 표현으로 묘사한다. 작품은 작가가 직접 새겨 온 발자취 그 자체이며 인간다움의 본질을 다층적으로 기록한 수행 정신으로 비롯된다. 이번 전시를 관람하며 구겨지고 펼쳐지며 쌓여가는, 무수한 꿈틀거림을 감각해 보기를 바란다.



작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자신의 (무)의식적 심상을 스케치로 기록하는 일생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매월 30~40여 장의 종이를 구기고 펼치며 자아를 해체하는 의례적인 행위로 작업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날에 느껴지는 순간의 감정과 생각을 직관적 글쓰기와 그리기로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그 표현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통해 이미지가 읽히고 이해되는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마무리한다. 모든 이미지는 월별로 종이 스트립의 형태로 연결되어 보관되고, 기록된 순서에 따라 애니메이션 시퀀스로 만들어진다. 더불어, 스케치 과정에서 남겨진 연필과 지우개의 잔여물도 함께 보관하여 때마다 변화하는 설치 작품으로 표현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삶’이라는 시간 속에서 자아의 내면을 지속해서 감각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내적 심연을 바깥 세계로 표출함으로써 의식의 흐름을 반성적으로 돌아본다.



일생 프로젝트: 심상 스케치 | 애니메이션, 20241001(~)

\* [작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매일 업데이트되는 애니메이션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일생 프로젝트: 심상 스케치

2025 - 2026



일생 프로젝트: 심상 스케치

종이 스트립 외, 가변크기, 금천예술공장 2026



일생 프로젝트: 심상 스케치

종이 스트립 외, 가변크기, 금천예술공장 2026



일생 프로젝트: 심상 스케치  
종이 스트립 외, 가변크기  
언커먼 갤러리 2026



일생 프로젝트: 심상 스케치  
종이 스트립 외, 가변크기, 언커먼 갤러리 2026



일생 프로젝트: 심상 스케치

종이 스트립 외, 가변크기, 언커먼 갤러리 2026

일생 프로젝트: 심상 스케치  
종이 스트립 외, 가변크기, 언커먼 갤러리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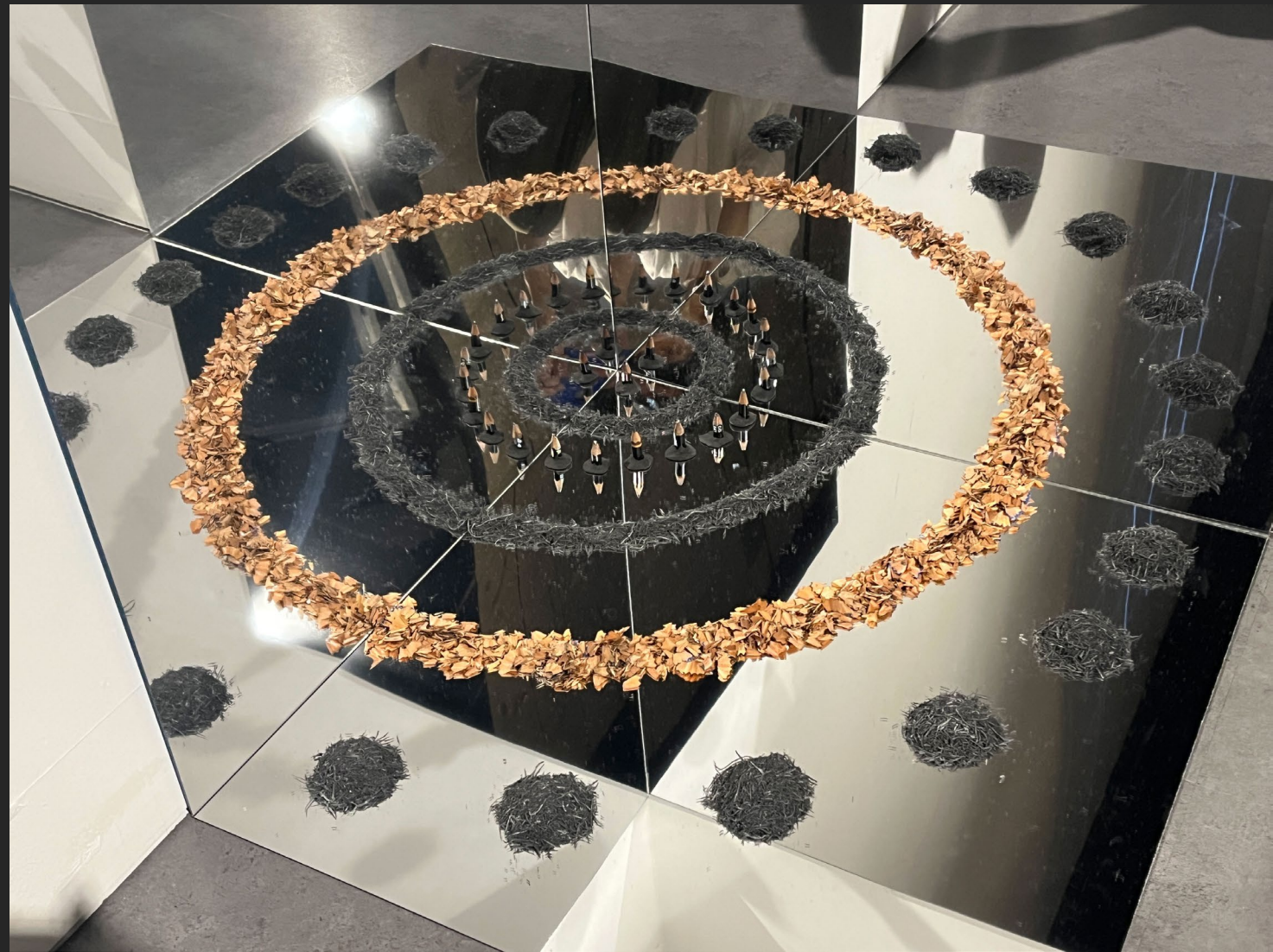


남겨진 오브제

심상 스케치 작업 후 남겨진 연필과 지우개 잔여물 외, 가변크기, 언커먼 갤러리 2026



일생 프로젝트: 심상 스케치  
종이 스트립 외, 가변크기, 아지트 미술관 2025



남겨진 오브제

심상 스케치 작업 후 남겨진 연필과 지우개 잔여물 외, 가변크기, 아지트 미술관 2025



삶의 구겨짐과 펼쳐짐  
종이 스트립 퍼포먼스, 아지트 미술관 2025



일생 프로젝트: 심상 스케치  
종이 스트립 외, 가변크기, 갤러리 도스 2025



일생 프로젝트: 심상 스케치  
종이 스트립 외, 가변크기, 갤러리 도스 2025



남겨진 오브제

심상 스케치 작업 후 남겨진 연필과 지우개 잔여물 외, 가변크기, 갤러리 도스 2025





일생 프로젝트: 심상 스케치  
종이 스트립 외, 가변크기, CICA 미술관 2025



일생 프로젝트: 심상 스케치  
종이 스트립 외, 가변크기, CICA 미술관 2025



남겨진 오브제

심상 스케치 작업 후 남겨진 연필과 지우개 잔여물 외, 가변크기, CICA 미술관 2025





삶의 구겨짐과 펼쳐짐  
종이 스트립 퍼포먼스, CICA 미술관 2025

구겨진 삼베 드로잉

2025

삼베 표면 위에 오일 파스텔은 그것의 물성과 역사성에서 이질적인 조화를 이루며 서로 ‘어설피게 머무른다.’

나는 이러한 매체의 이질적 특성이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경계에서 성장한 나의 내면과 닮았다고 느낀다.

혹은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내면의 복합적이면서 모순적인 자아의 질감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름 없는 존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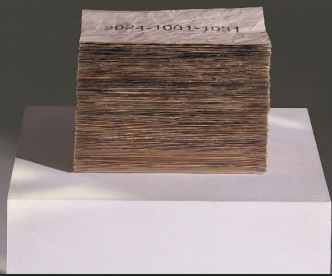
구겨진 삼베 천 위 오일 파스텔, 개별 29.7 x 21.0 cm 2025



이름 없는 존재(들) 금천예술공장 2026

이름 없는 존재(들) 금천예술공장 2026





시간의 무게 I

구겨진 삼베 천 위 오일 파스텔, 150 x 60 cm 2025



시간의 무게 II

구겨진 삼베 천 위 오일 파스텔, 220 x 60 cm 2025

구겨진 삼베 천 위에 다양한 선을 끄적이듯 그리며,

빠름과 느림, 가벼움과 무거움, 허술함과 견고함이 이질적으로 공존하는 다층적인 시간의 겹을 쌓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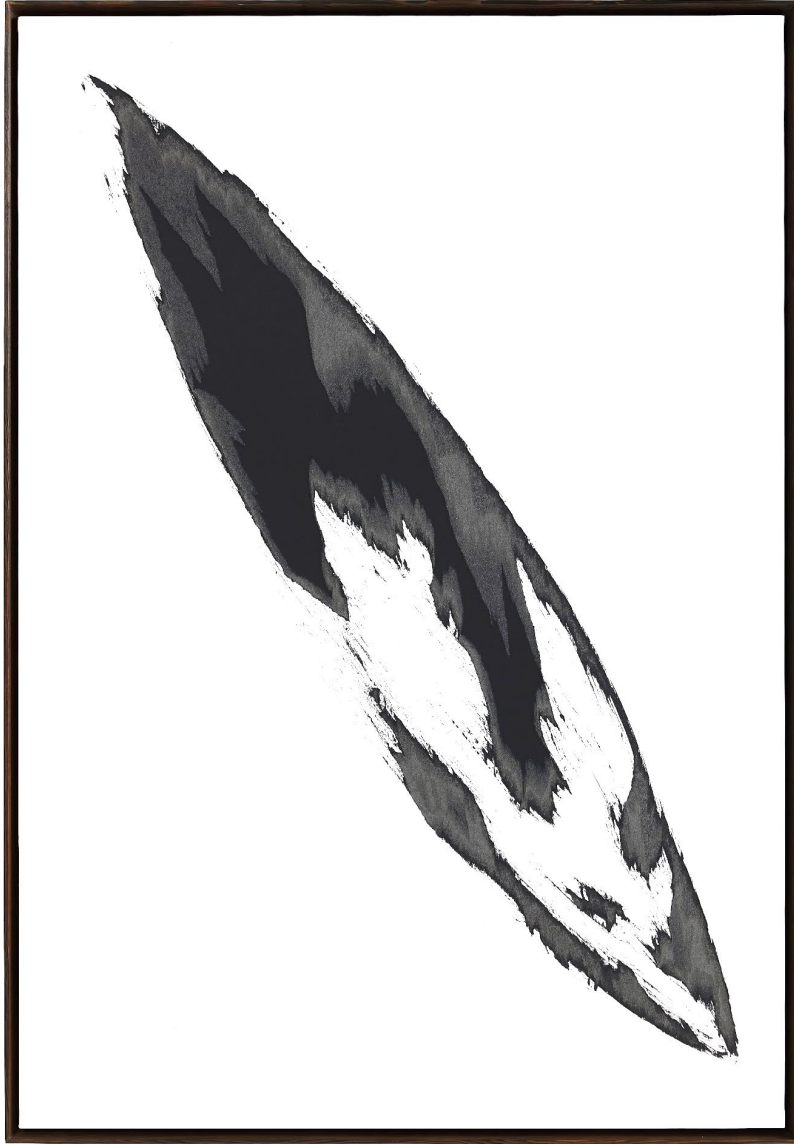
<시간의 무게> 연작은 <일생 프로젝트: 심상 스케치>의 종이 스트립이 쌓여가는 형상을 모티프로 작업했다.

찢겨진 종이 드로잉

2024



종이를 붙이고 기다리고, 뜯어내며 찢는다.  
이렇게 의도와 우연 사이에 남겨진 흔적에서  
새로운 형태를 (재)발견하며 주변적 존재의 가치를 묻는다.



Wings of Desire (좌 & 우)

종이 판넬 위 찢겨진 종이, 개별 120 x 83 cm 2024



Wings of Desire

개인전 전시 전경, 갤러리 도스 2025



바람과 황소와 물고기  
종이 판넬 위 찢겨진 종이, 51.0 x 63.5 cm 2024



Vitality I (좌) & Vitality II (우)  
종이 위 찢겨진 종이와 연필  
개별 44 x 32 cm 2024



염원

종이 위 찢겨진 종이, 41 x 29 cm 2024



애도

종이 위 찢겨진 종이, 29 x 41 cm 2024

종이 회화

2023 - 2024



종이를 구기고 찢고, 붙이며  
서로 다른 형태의 종이조각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몸체를 만들어간다.  
목적 없는 행위가 만들어내는 무위의 질서를 탐색한다.



시인과 바다

종이 판넬 위 헌 종이류, 105 x 85 cm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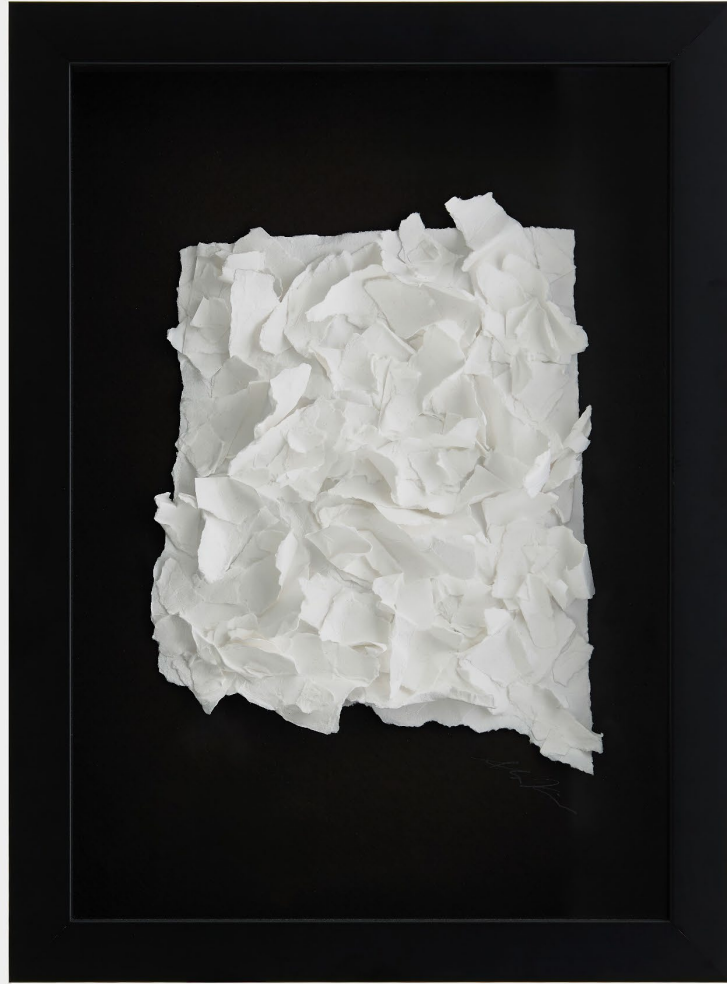


Corpus III

종이 판넬 위 종이, 94.5 x 94.5 cm 2024

Corpus II  
캔버스 위 종이, 81.0 x 68.5 cm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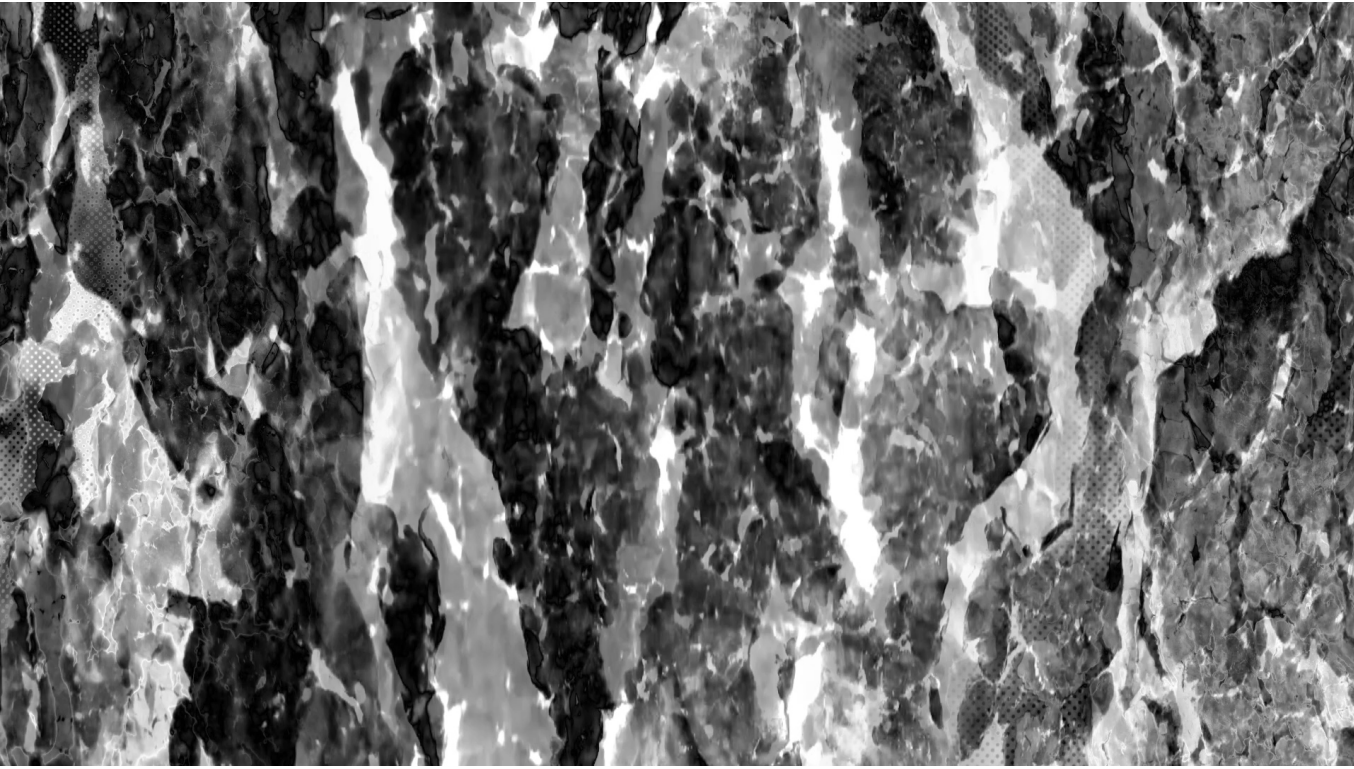


Corpus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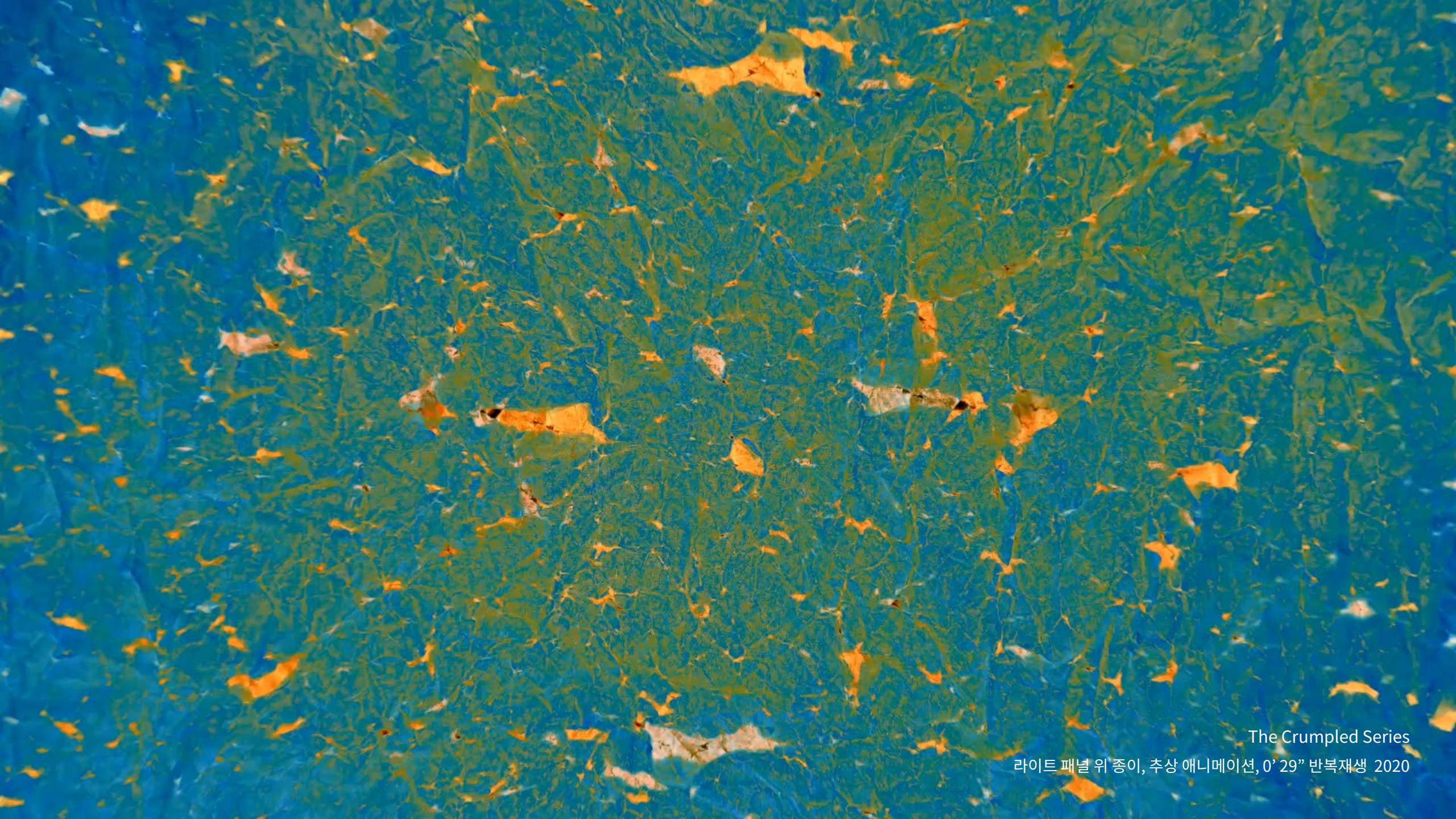
종이 위 종이, 32.5 x 24.0 cm 2023

추상 애니메이션

2020



종이의 반복적인 구겨짐과 펼쳐짐이 만들어내는 주름과  
균열, 해체적 형태를 개별화된 프레임으로 촬영한 후,  
하나의 시퀀스로 연결하여 움직이는 이미지를 만든다.



The Crumpled Series

라이트 패널 위 종이, 추상 애니메이션, 0' 29" 반복재생 2020



The Crumpled Series

라이트 패널 위 종이, 추상 애니메이션, 0' 15" 반복재생 2020





